

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.kicce.re.kr	보 도 자 료		
	작 성	담당부서	출판홍보팀
		담당자	김혜진 팀장(02-398-7729)
	배 포	담당부서	출판홍보팀(02-398-7740)
		일 시	2026년 9월 23일(수)
보 도 일 시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"유보통합, 행정통합 넘어 '교사·교육과정·유-초 연계'까지 함께 가야"

교사 자격·처우, 유-초 연계, 교육과정까지 아우르는 체제 개편 필요

육아정책연구소 2026 「해외육아정책리포트」 04호,

「국외 유아교육·보육 체제 분석: 프랑스, 잉글랜드, 스웨덴을 중심으로」 발간

〈 주 요 내 용 〉

- 육아정책연구소(소장 황옥경)는 2026 「해외육아정책리포트」 제4호 「국외 유아교육·보육 체제 분석: 프랑스, 잉글랜드, 스웨덴을 중심으로」를 발간하였다. 이번 리포트는 2000년 전후부터 국제사회에서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·보육 체제 개편의 흐름을 바탕으로 프랑스, 잉글랜드, 스웨덴의 제도, 교사, 교육과정, 유-초 연계 등을 비교·분석하고,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.
- 국가마다 유아교육·보육 체제는 달랐지만,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연속성,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.
 - 프랑스는 3세부터 유아학교를 의무·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,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가 동일한 자격체계를 갖도록 해 유-초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. 3~5세 유아교육 취원율은 99% 이상으로 보편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.
 - 잉글랜드는 유아교육·보육의 행정통합을 이루고 무상 교육·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,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에 따른 부모의 비용 부담과 교사 간 지위·처우 격차 등이 과제로 나타났다.
 - 스웨덴 역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교육과정 연계와 교사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.
- 연구진은 이들 사례를 토대로 현재 유보통합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유아교육·보육의 역사와 지형 및 미래 비전을 바

탕으로, 정책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.

-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. 연령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여부와 별개로, 동일 연령대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공·사립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 및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복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.

□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도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.

- 우리나라도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자격 공통으로 5세 누리과정 및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, 현직교사 교육에서 유-초 교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유-초 전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.
- 특히 유아기 동안 축적된 생활과 발달에 관한 기록이 초등학교에서 실제 적응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□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.

- 연구진은 향후 누리과정 개정 시 초·중등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디지털 교육과 관련하여 디지털 안전과 윤리,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한 학습과 탐색, 창작과 감상 및 자기표현 등이 5개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
□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 다운로드: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([링크](#))

붙임: 2026년 해외육아정책리포트 04호 파일 1부. 끝.

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	[상세문의] 저출생·가족정책연구실		
	(패널·빅데이터연구팀)		
	[배포부서]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		
	최은영 선임연구위원	02-398-7782	
	김혜진 팀장	02-398-7729	
	주송희 책임행정원	02-398-7740	